

사회주의 현장분회 운동의 시초축적을 위하여

백종성

이 글의 취지

이 글은 노동현장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들이 놓인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를 확대재생산 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적 자원과 정치적 자원이 무엇인가를 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맞이한 패배는 곧 노사협조주의자들의 현장정치에 대한 패배임을 논할 것이다. 우리의 패배는 단지 우리가 현장에서 전투적인 투쟁을 벌여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노사협조주의자들에게 대한 반정립을 넘어서는 우리의 사회주의 정치를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우선적인 과제는 사회주의 현장분회의 건설이며 현장분회의 자기동학 정립이라는 것을 주장할 것이고, 조직에 속한 모든 현장 사회주의자들은 무엇보다 이를 위해 전력투구해야 함을 주장할 것이다. 사회주의 정치의 물질적 토대인 현장분회를 건설하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투쟁이며, 이 투쟁을 바탕으로 우리는 현재의 운동을 혁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현장분회를 통해 강령적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그 과정 속에서 당 조직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현장을 일신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건설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아니며야 한다. 당이 수행하는 계급투쟁의 최전선, 현장분회는 전국의 현장에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회주의자로서의 자신을 대중 앞에 드러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사회주의자요”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진보정당과 관료적 산별노조의 양날개론, 즉 노동계급의 정치를 투표와 당비납부로 제한하며 계급투쟁을 법제도의 틀 안으로 구속하는 소위 ‘진보정치’의 파산을 선언하며 전면적 노동자통제 투쟁을 벌여낼 것이다.

동지들, 그런 임무를 수행하기에 우리가 가진 자원이 없는가? 아니다. 이 글을 읽는 동지가 가진 사회주의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우리의 가진 가장 큰 자원이다. 이것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모든 새로운 정치의 출발은 그러할 수 밖에 없다. 중국공산당의 창립대회에는 단 13명이 참가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정치적 자원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지형에 파열구를 낼 수 있다. 모든 대기주의와 결별하자. 모든 실력양성론과 이별하자. 87년 이후로만 쳐도 당 건설을 염원한지 24년, 대체 당 조직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가. 체제를 수호하려는 자들과 체제를 변혁하려는 자의 전선을 형성하자. 복잡하게 꼬인 현실을 단호한 실천의 칼로 갈라치자!

1. 사회주의자와 생산현장

(1) 생산과 계급투쟁

계급투쟁은 언제나 존재한다. **계급사회에서는 생산자체가 계급투쟁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생산을 둘러싼 일상적 계급적대에서 자본

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뜻이다. 생산과정은 적대로 가득 차 있으나, 저들은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산업평화라 말한다. 산업평화의 실상은 항상적으로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내고 착취율을 높이려는 자본의 계급투쟁에 대한 노동자의 반격의 부재를 의미하는 말이다.

산재로 하루에 7명이 죽어나가도 파업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저들에게 '평화'다. 현대중공업에서 연간 14명이 비명횡사하고, 철도에서 감전사하는 노동자들이 30명에 달해도, 현대자동차에서 심혈관계로 비명횡사하는 노동자들이 2년간 30명이 넘어도 그것은 저들에게 '평화'이다. 이렇듯 산업평화의 의미는 노동이 자본우위의 역관계 속에서 숨 쉴 틈조차 없이 압도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자본은 언제나 노동과 투쟁하고 있다. 스스로 자본이기 위하여, 생산현장은 잉여가치율을 높여내기 위한 자본의 항상적 시도와 노동의 반격이 맞부딪히는 공간, 노동과 자본의 일상적 적대가 맞부딪히는 공간, 자본주의의 모순이 벌거벗은 형태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생산현장은 자본주의의 시초부터 전쟁터였다.**

자본주의는 대량의 잉여가치 창출을 위해 '공장'이라는 집약적 노동공간을 창조했고, 그 결과 공장은 계급적대가 응축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 되었다. 자본주의는 그 시초부터 생산-유통-소비 영역을 관통하지만 **잉여가치는 생산과정에서 창출되며, 그렇기에 생산현장은 우리의 핵심거점이다.** 또한 그렇기에 대량의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대규모의 집약적 생산현장은 우리에게 '관계고지'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2) 사회주의자와 생산현장, 그리고 조직

사회주의자에게 생산현장은 무엇인가? 사회주의자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는 일상적 계급적대를 의식적 계급투쟁으로 상승시키는 것, 곧 현장의 노동대중을 계급의식으로 무장시키고 자본가에 대해 배타적인 이해관계 속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자는 노동자를 하나의 계급으로 형성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사회주의자는 현장에서의 일상적 계급적대를 의식적 계급투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모든 정치적/경제적 투쟁에서 노동자가 고통받는 원인은 단지 저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 때문이 아니라 **체제자체의 문제임을 선동한다.** 즉 자본가의 지배체제를 끝장내지 않는 한, 사적 소유를 철폐하지 않는 한 계급투쟁은 영원할 것임을 선동한다. 계급적대는 결국 권력의 문제로 귀결되며, 자본주의를 노동자 계급의 힘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을 선동한다.

이런 투쟁의 물리적, 의식적 결과물을 통해 사회주의자는 생산현장 내에 조직을 건설한다. **조직이란 특정한 의식과 특정한 관계를 확대재생산 하기위한 물질적 기초이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조합운동을 위해서는 조합조직이, 선진대중운동을 위해서는 선진대중조직이, 사회주의 정치운동을 위해서는 사회주의 조직이 필요하다. (관료적)노동조합 없이 조합주의의 확대재생산이 있을 수 없듯, **사회주의 현장세포(현장분회)가 없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확대재생산도 있을 수 없다.**

당적 활동을 구현하는 현장분회의 건설 없이 현장의 사회주의적 재편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당적 활동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활동과 전술을 당의 규율과 결정에 복속시키며, 또한 자신이 남긴 활동의 성과를 당으로 총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당을 건설할 우리회원들이 당적 활동을 체화할 때

만 지도조직으로서의 당의 건설은 가능하다.

그렇기에 사노위 회원에게는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정체성보다, 현장조직의 전투적 선진활동가로서의 정체성보다, <사회주의 현장정치>로서의 정체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의 최우선적 정체성은 노동조합 활동가가 아닌, 현장조직의 간부가 아닌, 사회주의 현장정치가다. 우리를 규율하는 제1차적 동인은 사회주의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이어야 한다. 노동조합이 투쟁이 발전된다고 해서, 현장조직의 투쟁이 발전된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사회주의 정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3) 노동조합에 관하여

노동조합은 착취의 원인이 아닌 착취의 결과에 대해 투쟁한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임금노예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자본주의 임금노예제도 그 자체가 아닌, 착취의 경감을 위해 투쟁한다. 원인이 아닌 결과에 대해 투쟁하기에, **노동조합 자체로 자본주의의 착취 그 자체를 끝장낼 수는 없다.**

착취의 종식을 위해서는 자본가의 권력 그 자체를 노동자계급에게도 되찾아올 당과 노동자평의회가 필요함을, 사회주의자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노동조합운동의 현황은 매우 답답하다. 조합원의 물질적 이해관계에, 성과금 몇 푼에 연대투쟁의 정신을 팔아넘기는 일마저 허다할 정도이다. 그 결과 일부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조합에 개입하는 것을 거부하며, 심지어 노동조합 무용론까지 들고 나온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없어서는 안될 조직이며, 반드시 방어해야 할 조직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조합이 없었을 때 경제법칙 상 응당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마저도 빼앗으려 들며, 현 시기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로 표상되는 노동계급 내부의 극심한 분리 역시 상당부분 노동조합운동의 타락과 패배에 기인한다. 노동조합 만능론은 경계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노동조합운동 무용론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우리에게서 그것을 재편할 계획이 필요할 뿐이다. 다음을 보자.

노동조합들은, 자본 -노동자계급 자신의 손으로 만든 생산물- 이 노동자 계급을 붙잡아 매는 속박으로부터 노동자 계급을 자유롭게 하는 데 성공했는가? 노동조합들은 노동자 계급의 단 한 부분이라도 임금노예의 상황 위로 올라설 수 있도록, 그들 자신의 생산수단들인 그들의 업종에서 필요한 원료, 도구, 기계 등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 자신의 노동 생산물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왔는가? **노동조합들이 그렇게 해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것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 반대로, 영국에서도 다른 모든 공업국에서도 노동조합들 자본에 맞선 투쟁에서 노동자계급들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 임금법칙은 노동조합들의 투쟁에 의해 교란되지 않는다 ; 반대로 임금법칙은 그 투쟁들을 통해 관철된다. - F.엔겔스, 『임금제도』 중에서

2. 사회주의 현장정치가가 당면한 상황

1) 끊임없이 벌어지지만 각개격파 당하는 계급투쟁

우리는 “노동조합이 이 모양인데 어쩌라는 것인가?”, “당신들은 현장을 모른다”는 항의와 냉소에 익숙해진지 오래다. 이런 반응은 전업 정치가에 대한 현장정치가의 반응이기도 하고, 그 현장정치가에 대한 현장대중의 반응이기도 하며, 심지어 더 급진적인 정치조직에 대한 다른 정치조직의 반응이기도 하다. 노동조합에서, 그리고 현장조직에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위축되어 있는 전투파의 현실은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물리적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투쟁이 벌어지지 않는 것도 아닌데 모조리 패배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투쟁은 시시 때때로 벌어지고 있다. IMF 이후 10년간의 투쟁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2년간만 해도 쌍용차, 금호타이어, 발레오만도, 발레오전장, 한진, KEC, 현대차비정규직, 전북버스과업, 유성기업 등등에서 보이듯 투쟁은 실 틈도 없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그것이 급진적인 형태를 띠지 않는 것도, 생산에 타격을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급진적인 형태를 띠며 자본가의 이윤착취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형태로 발발하고 있음에도 노동운동의 내적 질서가 이를 승리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투쟁은 있고, 의지도 있으나 이를 가로막는 질서가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는 스스로의 무능력으로 인해 이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생산현장 밖에서도 투쟁은 터져 나오고 있다. 08년 촛불투쟁, 01년의 등록금 문제를 비롯한 학생들의 교육투쟁을 생각해보자. 김진숙 동지에게 당도한 그 수많은 지지와 연대를 생각해보자. 문제는 조직된 노동자들이 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직된 노동조합에서 투쟁이 벌어졌을 때조차 우리는 연대해 싸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생산현장 바깥의 투쟁을 받아 안고 싸우는 것은 더욱 힘든 상황이다. 이것은 노동운동 자체에 대한 회의를 결과하고 있다. 투쟁은 터져나오고 있고 상황은 결코 절망적이지 않으나 우리의 무능은 심각한 상황이다.

2) 계급타협노선의 전면화 속에 제발로 선 노동조합 관료주의

투쟁이 터져나오고 있음에도 이것이 더욱 확장되지 못하고 단위사업장의 투쟁으로 한정되고 있다는 것은 투쟁의 확장을 막는 질서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이것을 실력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시기 투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노동조합 관료주의이다.

이제 우리에게 노조관료주의의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있다. **노동조합관료주의는 민주노조운동 내에 명백한 실체로 자리 잡았다.** 10년이 넘는 후퇴 속에서 노동조합 관료주의는 완고한 물질적 실체가 되었고, 물질적 실체가 된 관료주의는 투쟁을 질식시키고 투사들을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수파로 전락시키거나 배제하며 자신을 더욱 강화해가고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과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이다. IMF 공황 이후 충분히 경험했듯 관료주의는 관료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조합 관료주의 또한 자신의 노선과 물질적 토대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합의주의’, ‘사회연대전략’, ‘노동자 경영참가’와 같은 계급타협 노선은 현재의 자본주의의 위기를 노동자계급이 분담하자고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본가계급과의 타협을 통한 고통분담을 추구하는 이들의 노선은 공황이 불러온 자본의 지불능력의 위기 속에서 한 없이 반동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만연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해 계급타협론자들이 내놓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파견사용 사유제한, 자본과 정규직의 역할분담론 앞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은 더욱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 속에서 노동계급의 분할은 당연한 것, 상시적인 것이 되었고 노동계급의 단결을 추동하려는 우리의 실천은 현실성 없는 공상으로 치부되기에 이르렀다. 노동계급 내의 전투파인 우리의 고립 자체가 저들의 승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황 속에서 이들의 노선은 물질적 안정성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노동계급의 절대적 후퇴를 결과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진보정당운동과 06년에 그 골간이 완성된 관료적 산별노조, 이 양자가 노동조합 관료주의의 물적 근간을 구성하고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관료주의는 존재했지만, 그것은 이 양자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드러낸 것이다. 노동운동내의 관료적 질서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산별노조-진보정당이라는 양날개론이 노동운동 내에서 거둔 승리를 방증한다. 연대파업을 호소하는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는 파업에 반대하는 형식적 민주주의 표결 앞에 묻혀버리고 있고, 실리주의자들은 모든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 함께 투쟁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산별노조는 대규모 관료집단만을 축적한 종이호랑이가 되어버렸고, 진보정당운동은 부르주아 정치세력과의 연합 속에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양자는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바, 산별노조는 진보정당의 표발을 제공하는 한편 진보정당의 정치의제를 중심으로 대정부/대자본 요구안을 내걸기 시작했고, 진보정당은 산별노조를 통해 자신의 인적/물적 실체와 대중적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 동력을 확보했다. 이 틀을 바탕으로 노동운동의 국가로의 포섭은 전례없이 강화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구축된 '개량없는 개량주의'는 조직노동자 운동의 사회적 고립을 결과하고 있다.

이렇듯 노동조합 관료주의는 개량주의 정치세력 및 부르주아 정치세력과의 연관, 더 나아가 자본가와의 연계 속에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제하고 거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KEC 투쟁과정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과정에서, 전북 버스파업 투쟁과정에서 개량주의 정치세력과 노동조합 관료들은 야권연대의 이름으로 투쟁의 급진화를 막아섰다. 어용세력이 장악한 현대차 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비정규직 투쟁을 질식시키는데 앞장섰고, 민주노동당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연대'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배신적 직권조인을 저지른 한진중공업 채길용 집행부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를 개량주의 정치세력과의 투쟁없이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량주의-노동조합관료주의와 투쟁하지 않고 노동자운동의 진전은 불가능하다.

무수히 선언되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은 뺑파업, 뺑투쟁으로 귀결되고 있을 뿐이다. **다수결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투쟁의 억압, 현장의 정서를 무기로 행해지는 배신을 돌파할 주체의 결의, 그리고 이 주체를 결집할 조직적 틀의 구축이 필요하다.** 연대파업을 부결시키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연대를 부르짖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본가에게 봉사할 뿐인 그 형식적 민주주의를 단호히 짓이겨야 한다. 우리가 노동조합의 질서에 간하지 않는 투쟁을 선도하지 못하는 한 당건설은 불가능하다. 현장활동가들이 노동조합 질서에 간하지 않고 투쟁을 조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운동의 전진은 가능하다.

3) 현장조직운동의 침체

분명 현재 현장조직운동은 노동조합의 질서에 간혀 있다. 노동조합의 잘못된 행보를 독자적인 투쟁으로 바로잡아야 할 현장조직운동 그 자체가 조합주의 질서내에 간혀있고, 많은 경우 노동조합 집행

부 배출을 위한 선거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

현장조직이 주도하는 독자적 투쟁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되었다. 자신이 배출한 집행부가 오류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비판하는 모습 역시 보기힘들다. <현장권력쟁취! 계급적연대!>의 슬로건은 구체적 실체를 갖지 못한채 사문화되어가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에 갇히지 않는 투쟁 속에서 자신의 실체를 확인해야할 현장조직운동 자체가 조합주의 질서와 한몸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장조직운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많은 활동가들이 현장조직에 속해있다. 그것이 이전과 같은 위상의 대안으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활동가들은 현장조직을 매개로 움직이며, 이 틀의 바깥에 전투적인 활동가들이 군집해 있는 것 역시 아니다. 왜인가?

대중의식은 그 본성상 중층적이며, 불균등하게 발전한다. 현장조직을 구성하는 활동가대중이 단호한 실천으로 조합주의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현장조직운동 내 사회주의 정치의 부재를 말할 뿐, 우리가 현장조직운동 자체를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현장조직운동의 침체와 타락은 사회주의 정치투쟁의 부재로 인한 결과이지 그 조직형식이 가지는 한계의 필연적 귀결이 아니다. 아직 당 활동가의 의식수준에 이르지 못한 선진노동자 대중을 결집할 다른 조직적 틀이 있는가?

현장조직운동에서의 철수는 사회주의자들이 가진 현장과의 접촉면적을 더욱 양상하게 축소시킬 것이며, 더욱 심각하게는 사회주의 정치를 계급투쟁에 대한 실물화된 전략/전술적 개입이 아니라 선전/선동으로 한정할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중을 관료화된 노동조합의 강제력 속으로 던져낼게 될 것이다. **다수가 사회주의 현장세포로 조직되지 않는 한 어떤 전술적 개입력도 가질 수 없다는 식의 최대강령주의적 실천은 우리의 정치를 양상한 선전선동으로 한정하게 될 것이 분명하며,** 이것은 우리가 가진 기반을 더욱 축소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런 노선을 통해 당을 건설할 수 없다. 당은 실제로 투쟁을 조직해낼 수 있을 때, 명실상부한 전술적 지도력을 승인 받을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대중에게 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것은 **현장조직운동 자체적으로는 스스로를 혁신할 동력을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장조직운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현재 현장조직운동은 현장조직 외부로부터의 정치적/조직적 충격을 통해 건인될 수 밖에 없다. **현장조직에 정치적/조직적 충격을 가하는 주체는 현장분회(당)이 될 수 밖에 없다.** 현장조직 내부에 포진한 회원은 현장조직 내부에서의 노선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현장조직운동은 내부의 전면적 노선투쟁을 통해 분화되고 혁신되어야 한다. 현장조직운동에서 철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장조직운동의 현상태를 용인하는 것 또한 정치조직의 무능을 표현하는 것이다. 양자는 정치적 무능력의 양면이다. 우리는 혁명조직운동의 정치적 재편과 분화를 추동하고 주도할 것이다.

4) 대중조직의 정치조직에 대한 역규정

우리는 사회주의자의 정치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싸워야 한다. 문제는 이렇게 계급투쟁의 거듭된 패배 속에서 **정치조직, 현장조직, 노동조합의 이념과 전술이 상호 충돌할 때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상승기에는 그럭저럭 봉합이 가능한 정치조직과 대중조직, 선진대중조직의 입장차이는 계급투쟁의 지속적 패배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 속에서 소수파인 사회주의 정치조직의 입장은, 그 입장을 관철시켜 낼 수 있는 뛰어난 사회주의

현장조직가가 대규모로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그대로 대중조직의 질서 속에 묻혀버리거나 현실을 모르는 철부지의 입장으로 냉소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이 과정 속에서 사회주의 현장정치가는 종종 잘못된 결정을 내린 대중조직과 한 몸이 되어버리거나 대중조직을 장악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선거 제일주의로 빠져들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는 더 이상 사회주의자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정치조직이 대중조직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조직의 현황이 정치조직의 전술적 입장을 역규정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함축한다. 고립분산적인 소수 씨클의 시기를 경과하며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하나 둘 쇠락해갔고, 이렇게 당적질서를 건설하지 못한 씨클들은 계급투쟁에 대한 사회주의적 지도력을 갖추지 못했다. 우리는 당적인 정치, 사회주의자다운 정치를 정립하지 못했다. **이 결과가 소위 '배후정치'이다.** 우리는 많은 계급투쟁에 인적/물적/전술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로서 현장에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 '배후정치'를 여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뒤에서 밀어대는 세력이 아니어야 한다. 우리는 앞에서 이끄는 세력이어야 한다.** 그렇다. 우리는 배후세력이 아니라 **선도세력**이어야 한다! 물론 사회주의정치조직들은 2000년대 중반에 와서야 수면위의 정치활동을 벌이기는 했지만, 일천한 공개활동의 경험이 배후정치를 합리화하는 기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조직-현장조직-노동조합의 구조 속에서 가장 규정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과 다른 입장을 가진 현장의 사회주의자들은 당연히 그 내부에서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고, 이것은 현장의 사회주의자들에게 **고통과 피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사회주의정치는 피로하고 고통스러운 그 무엇으로 여겨지게 된다.

대중조직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의 결함력 저하는 이에 기인한다. 우리의 정치, 조직, 그리고 규율을 통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당 건설은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를 스스로의 활동을 규율하는 첫 번째는 사회주의 현장정치가로서의 정체성이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확대하고 강화해갈 물질적 기구를 모든 현장에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5) 공개적 정치활동 경험의 부재

이 땅에서 공개적인 사회주의 당건설 정치운동이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이다. 이미 국민승리21 이후 15년 가량의 경험과 물질적 기초를 가진 의회주의자들에 비해, 우리가 가진 경험과 자원이 너무도 일천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개적인 사회주의 현장분회활동이 제기된 것 역시 몇 년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는 현장 속에 굳건히 뿌리박힌 당을 건설하고자 결집했지만, 그것의 실물화된 양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할 만한 현장세포활동의 모태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은 대중조직 내에 구축된 관료적 질서와 맞부딪혀야 하는 우리의 동지들에게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현장 밖에서의 정치와 현장의 정치를 탈구시키는 핵심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러시아 혁명의 과정에서 공장위원회, 평의회가 그토록 빨리 확대될 수 있었던 까닭은 노동조합이 거의 유명무실했기 때문이다. 비대한 국가에 비해 자본은 미약했고, 노동조합 관료주의를 통해 노동계급을 통제할 여력마저도 갖지 못했던 것이 러시아의 상황이었다. 이 평의회를 바탕으로 당은 자신의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었다.

서구의 조건은 달랐다. 이미 거대한 산별노동조합과 개량주의 정당들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만큼 사회주의자들은 이 질서를 뛰어넘기 위해 더욱 고군분투해야 했다. 그러나 이미 노동조합이 광범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서구의 상황에서도 평의회적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투쟁은 존재했고, 이것은 주요하게 노동조합의 현장조합원들과 현장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비공인 파업과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매개로한 것이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평조합원운동, 혹은 현장조합원운동(rank and file workers movement)**으로 불려왔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현장조직운동이 이런 운동적 질을 담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은 노사협조주의자들에 대한 반정립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다.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로 표상되는 현장조직운동은 정치적으로 자신을 정립하지 못했고, 스스로의 전술적 오류와 그에 기인한 패배 속에서 쇠락해갔다. 2005년의 전노투 역시도 반국민과 전선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현재 우리는 러시아와 서구의 조건,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것이다. 운동의 퇴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구의 사회주의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현장결합력을 가진 채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한국 노동자계급이 사회주의자들의 존재 이전에 이미 이런 운동을 수도 없이 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싸워왔던 경험을 가진 투사들은 그들의 의식적 정치와 관련 없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지지세력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절박한 의식을 무디게 하는 한 요소로 기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그들도 나이가 늘었다. 87년 이후 형성된 투사들은 이미 40대 중반을 경과했다. 더 늦어서는 안된다. 더 늦으면 우리는 새롭게 형성된 층을 흡수하기도 전에 우리가 가진 자원의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며, 이것은 이 땅 사회주의 운동의 엄청난 추락을 결과할 것이다. **소위 '87년 체제'는 쇠락해가고 있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운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조직으로 결집한 것 아닌가. 이 동지들이 가진 계급투쟁의 경험을 보존하고, 새롭게 형성된 젊은 투사들을 당으로 유입하기 위한 조직의 건설이 우리의 절박한 목표이다.

3. 사회주의 정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 - 현장분회 건설운동의 사활적 필요

(1) 왜 현장분회가 필요한가

다른 모든 것에 앞서 **현장분회가 필요하다.** 앞서 짚었던 4가지의 조건들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의 핵심은 현장분회운동의 전면화이다. 투쟁을 끊임없이 체제가 허락하는 범위 안으로 가두는 관료들과 투쟁하기 위해, 다수결을 무기로 투사들의 울골은 투쟁을 매장시키는 어용세력과 투쟁하기 위해, 대중조직 뒤에 숨지 않는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위해, 사회주의 현장분회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경험도 없고, 자원도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언제는 그렇지 않았는가? 레닌은 1917년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나폴레옹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단 해보면 알게 된다.”** 그렇다. 그것이 옳다면 일단 전력을 기울여 해보아야 한다. 그 주체의 의지가 먼저다. 모든 역량과 조건에 대한 논의는 그 다음이다.

개량주의 정치세력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세포와 선전선동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는 현재 조직노동자의 일상자체가 개량주의 정치를 내면화하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굳이 힘들여 발품을 팔 필요도, 노동조합 집행부의 반계급행위와 싸울 필요가 없다. 그들의 정치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르다. 소리 높여 그것은 틀렸다고 외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알릴 방법이 없다. 소수파가 되기를 두려워 우리의 정치를 숨기는 것은 저들의 일상적 '정치'에 대한 침묵을 의미한다. 반공주의자들이 말하지 않았는가? “빨갱이는 말이 많다”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 현장분회의 구축과 활동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정치를 말해야 한다. 당은 그런 투쟁을 통해 현장에 뿌리를 두고 구축될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분회의 건설 자체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는 투쟁이다.**

(2) 일정한 회원이 존재하는 현장에서는 반드시 분회를 건설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많지 않지만 적은 것도 아니다. 충분히 분회를 건설할 수 있고 자기동학을 정립할 수 있음에도 생산현장에서의 분회활동은 우리의 중심축에 놓이지 못하고 있다. 전체조직 및 각 지역위원회는 분회구축에 모든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추진위 건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이것을 미루어서는 안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안하고 성공한 현장분회운동의 사례를 만들어 내고 이를 확장시켜야 한다.

(3) 현장분회의 최소한의 자기동학을 정립하자

현장분회는 자신을 하나의 조직으로서 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동학을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현재 거창한 형태가 될 수 없음은 명확하다.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최소 2주 1회의 공개선전물(대자보가 되었건 유인물이 되었건), 그리고 최소 2주 1회의 회합**이다. 모임에서는 분회, 그리고 분회원의 활동이 보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은 **규율로서 강제**되어야 한다.

모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임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지역위에서 분회장의 회의참가를 통해 논의 가능한 시안을 굳이 분회에서 논의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며, 그렇기에 분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회의 정치가 부재하다는 말이다. 이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당조직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는 핵심적 이유이다. 최소한의 자기정치, 최소한의 자기동학을 만들어내야 한다.

4. 현장에 파열구를 내자

(1) 전국적 정치기획의 현장으로의 침투

조직의 정치를 현장으로 침투시키지 못하는 한 그 어떤 훌륭한 계획도 쓸모가 없다. '사회주의 정치'가 더 이상 현장 외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정치조직, 정당이 독자적인 정치전선을 형성하면서 대중투쟁, 대중파업을 촉발시켜 내야한다. 우리와 진보정당의 정치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으며 달라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민주노총 노동자 당원만 5만이다. 그럼에도 **진보정당은 자신의 당원들에게 현장에서 파업을 조직하라는 지침은커녕 요구조차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들의 조직적 기반 자체가 노동조합 관료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투쟁은 당이, 경제투쟁은 산별노조가 한다는 양날개론에 근거하고 있기에, 이들에게는 이런 개념자체가 있을 수 없다. 진보정

당이 파업을 조직하라는 지침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조직기반을 갉아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들과 전혀 다른 전망에 근거한다. 우리는 전국적 사회주의 정치전선을 형성하고, 그 정치기획과 전망을 가지고 노동현장과 만날 것이다. 이 정치기획은 정세와 강령에 근거할 것이다. 조직의 회원은 조직의 투쟁지침을 최우선의 지침으로 현장에서 싸워야 한다. 앞서 강조했던 현장분회는 조직의 전국적 정치기획을 각 현장으로부터 수행할 물질적 기반을 형성할 것이다. 우리는 정치정당, 정치조직이 주도하는 계급투쟁 전선을 형성할 것이다.

생각해보자. **경주지부와 발레오 만도 동지들이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완성차에 포진한 우리의 활동가들은 어떻게 싸웠어야 하는가?** 우리는 연대파업은커녕 물량에 대한 전수검사마저도 제대로 선동하지 못했다. 우리는 당을 통해 이를 이루어낼 것이다. 전국적 기획에 근거한 당의 선도적 실천을 통해 노조와 현장조직을 추동해갈 것이다. 사회주의 현장분회는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전국적 차원의 기동전을 예비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물질적 실체를 가진 현장분회 없이 우리는 주요한 정세적 기동전을 치뤄낼 수 없다.**

09년 7월 20일을 기억한다. 평택으로 집결하던 중 쌍용차 조직2부장의 부인이 자결 소식이 들려왔던 날이다. 수많은 투사들이 그 죽음을 안타까워했다.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동지들은 목격한 돌덩이를 가슴속에 엮어놓은 듯 한 고통에 시달렸다. 만약 **생산라인의 스위치를 잡을 수 있는 투사와 조직이 일상적인 훈련을 통해 구축되어 있었다면**, 실제로 우리는 파업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파업은 확산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건설할 당, 그리고 당의 현장분회는 이런 임무를 실제로 수행해낼 수 있어야 한다.

(2) 진보정치에 대한 파산선언과 공개적인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의 정립

현장분회의 공개선전물은 현장의 투쟁사안에서부터 개량주의 정치세력과의 공개적 투쟁을 포괄해야 한다. 먼저 **개량주의 정치세력과의 투쟁**이다. 개량주의 정치진영의 이합집산이 가속화되는 와중에 노동자정치의 원칙에 대한 정립과 반성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심지어 국참당까지 진보세력의 일부로서 승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현장분회활동을 매개로 **노동자 정치와 분리된 노동자 운동은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우리는 '진보정치'의 파산을 집단적으로 선언하고, 현장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사회주의 정치를 조직해 나가야 한다. 자본가 정당과 한몫이 된 **진보정당운동과 이들의 노선인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과 사회연대전략의 총체적 파산을 선고**하고 우리의 정치를 실물화 시켜 나가자. 이를 바탕으로 현장세포의 핵분열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정치거점을 확대재생산 해야 한다.

강령과 정치신문은 이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강령에 근거한 현장정치투쟁을 통해 자본주의를 넘어 서야하며 넘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현장의 대중에게 불어넣고, 이를 바탕으로 당의 조직적 근간을 구축해야 한다. 강령에 근거한 정치투쟁을 벌여내고 정치신문의 토론모임을 만들어내야 한다. 신문의 배포를 넘어 현장의 평가에 촉수를 기울이고 이를 전체조직으로 수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분회를 계급투쟁의 명실상부한 최전선으로 세워내야 한다.

(3) 노동자 통제투쟁의 전면화

자본가는 소유권과 경영권을 통해 생산과정 전체를 지배한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작업정지권 역시도 자본가의 생산통제권에 대한 투쟁을 통해 획득될 수 밖에 없다. 자본가들은 이런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그것은 경영권의 영역’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경영권을 건드리는 투쟁 없이 노동자계급은 권력은커녕 권리의 주체조차 될 수 없다.** 그렇기에 노동계급은 언제나 자본가의 전일적 생산통제, 즉 경영권에 대해 싸워왔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생산된 잉여에 대한 분배 뿐만 아니라, 생산이 이루어지는 방식 자체에 대해 투쟁해왔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자본가 소유권에 대한 투쟁이 이미 현실 속에 잠재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이를 더욱 전폭적이고 공세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노동자통제투쟁’은 생산과정에 대한 자본의 소유와 경영, 즉 자본의 현장통제와 직접 대립하는 투쟁으로, 그 자체로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드러내주는 투쟁이다. 일상적인 현장투쟁을 노동자권력을 위한 투쟁으로 매개해주는 투쟁이다. 사회주의 현장분회는 현장에서 노동자통제투쟁을 선전/선동하고 실제로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상의 주인이 되자는 열망을 현장에 불어넣어야 한다.

노동과정에서의 작업중지권, 자동화와 신기술의 도입에 대한 합의권, 노동강화와 현장통제의 강화에 맞선 투쟁, 공장의 통합과 증설, 근무체제와 조직체계의 재편을 통한 전환배치, 징계 및 인사에서 노사동수,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저지 투쟁, 기업정보와 영업비밀의 공개 등 현장 내에서의 ‘노동자통제’ 강화를 위한 투쟁에서부터, 공공부문에 대한 노동자민중통제 도입, 국유화된 금융이나 기업에 대한 노동자민중통제제도 구축, 학교나 병원 등에서의 자주적 조직의 건설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통제체제의 구축 등 전사회적인 노동자통제 구축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인 정치기획에 근거한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노동조합, 현장조직과 독자적인 세포를 구축해야 한다. 일상적인 현장투쟁의 선두에서 노동자통제투쟁의 실물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보여야 한다.

(4) 현장조직운동의 재편을 추동하자

더 이상 현재와 같은 현장조직운동의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상태의 지속을 방치하다가 는 현장조직운동은 관료적 노동조합과 한몸이 되어버릴 것이다. 앞서 말한 현장분회의 활동을 통해 현장조직운동의 재편을 추동해야 한다. 현장분회의 활동자체가 현장조직운동의 재편과 분화를 추동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노선에 대한 반정립을 넘어서야 한다. 현장조직운동 자체가 성장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치조직의 세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 그러나 현장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우리는 현장조직을 다시 투쟁기관으로 세워낼 수 있을 것이며, 이 현장조직의 노선적/정치적 분화를 추동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노동조합, 현장조직과의 불화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사회주의 정치조직이 이 불화를 이기지 못하고 현장조직운동의 과산을 선언했다. 이것은 무능한 정치의 책임을 조직형식으로 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장조직운동의 쇠락은 현장조직이라는 조직형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조직운동의 후퇴는 사회주의 정치의 부재에 근거한다.** 자 조직이 배출한 집행부의 오류를 감싸 안는 보신적 기회주의, 스스로 투쟁을 회피하는 조직보존적 담합주의, 독자적 활동 없이 집행부 장악을 만능으로 놓는 선거주의를 넘어서는 것은 현장조직운동에서의 철수가 아니라

사회주의 현장세포의 정치활동이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기존의 조직형식과 불화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가 수행할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은 논쟁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수행하는 현장투쟁과 정치적 노선투쟁은 관료주의에 찌든 노동조합과 이를 돌파할 동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장조직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고, 우리의 행동하나하나가 기존의 활동양태와의 마찰을 낳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마찰과 그로 인한 불화는 좋은 일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새로운 노동운동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현 상태를 지양하는 운동은 산고의 고통 속에서 탄생해왔다.

5. 나가며 - 사회주의자로서 자신을 드러내자

더 이상 현장조직운동 뒤에, 노동조합운동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 노사협조주의에 대한 반대하는 전 투과를 넘어 자신을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존재로 정립해야 한다.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로서 드러내고, 당의 주체로서 현장을 사회주의적으로 재편하자고 선언해야 한다.

분명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것이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의 정치를 말하는 것은 쉬워도 우리의 정치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의 정치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자체가 투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투쟁이 없이 우리는 당을 건설할 수도, 지금보다 한발 나아갈 수도 없다. 사회주의 정치운동이 현장외부에 포진한 활동가의 몫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정치투쟁은 정당, 경제투쟁은 산별노조가 한다는 개량주의자들의 기획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상이다. 노동의 현장 자체가 사회주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어야 하며, 이 공간을 재편하는 투쟁 자체가 사회주의 정치에 근거해야 한다. 모든 현장투쟁 하나하나에 우리의 사회주의 정치를 공개적으로 녹여내야 한다.

우리가 사회주의자로서 자신을 드러냈을 경우, 우리는 일정한 관계망의 축소와 맞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것이 될 것이다. 사노위라는 대안세력이 우리의 현장에 이미 존재한다는 것, 그 세력은 당면한 현장의 문제와 어떻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현장의 대중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산별노조-진보정당이라는 양날개론을 뛰어넘는 우리의 정치기획을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후퇴해온 이유는 단지 현장에서 잘 싸우지 못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를 정립하지 못한 채 국민파, 중앙파에 대한 대당으로서만 존재해왔던 것이다. 무엇에 반대하는 존재로 자신을 정립시키는 운동, 즉 반정립의 운동은 그것이 아무리 강력해보일지라도 오래 지탱될 수 없다. 자신을 무엇을 향하는 존재로 정립시키지 못하는 운동은 승리할 수 없다. 우리의 독자적 정치를 정립해야 한다. 강령을 현실의 투쟁으로 만들어내자. 그렇게 사회주의자로서의 자신을 드러내자. 우리는 무엇에 반대하는 존재가 아닌 무엇을 지향하는 존재여야 한다.